2017년도

제11기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

광주정신은 공동체의 미래다

2017년 9월 6일 - 9월 26일	2017년 9월 27일 목요일
매주 수요일 오후2시	---- 문화탐방 ----
북구 평생학습문화센터 2층	남해 역사문화탐방

GWANGJU BUK-GU 광주광역시북구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2017년도

제11기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

광주정신은 공동체의 미래다

2017년 9월 6일 ~ 9월 27일 매주 수요일
문화강좌 4회, 9월28일 문화탐방 1회

GWANGJU BUK-GU 광주광역시북구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개강식 일정

* 일시 : 9월 6일 (수) 14:00

개회선언
국민의례
개 회 사
축 사
강좌안내
폐 회
제1강좌 진행

강 좌 일 정

구분	일시	주제	강사진
문화 강좌	09.06( ) 14:00	소수자와 공동체-우리는 모두 소수자다	윤수종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
	09.13(수) 14:00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위하여	황대권 생명평화마을 대표, 생태평화운동가
	09.20(수) 14:00	3년의 사랑	지정남 방송진행자, 마당극 배우, 협동조합 '씨큐빅' 공동대표
	09.27(수) 14:00	공동체와 광장의 노래	정유하 5.18연구소 연구교수
탐방	09.28(목) 09:00	경남 남해 역사문화탐방(독일마을, 물건리어부방조림, 가천 다랭이마을 등)	

<목 차>

---------- 4

축 사 ---------- 5

제1강좌 : 소수자와 공동체, 우리는 모두 소수자다 9

제2강좌 :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위하여 23

제3강좌 : 3년의 사랑 33

제4강좌 : 공동체와 광장의 노래 45

개 회 사

청명한 가을의 문턱에서 문화도시 광주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제11기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로 11년차를 맞이하는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은 광주정신에서 공동체의 미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민의 삶 속에 녹아든 문화와 공동체 정신의 탐구와 더불어 소수자, 생태, 연대의 공동체, 저항문화 등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광주정신을 찾는 계기를 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광주시 북구청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본 시민대학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 강좌마다 120여명의 북구 주민과 시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행정이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단체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민·관 거버넌스 방식의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대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 운영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11기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은 **'광주정신은 공동체의 미래다'** 라는 대주제로 총 4회의 문화강좌와 1회의 현장답사로 이루어집니다. 아무쪼록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송광운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청 관계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알찬 강의를 해주실 윤수종 교수님, 황대권 대표님, 지정남 대표님, 정유하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7. 9. 6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 백 수 인

축 사

어느덧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는 가을입니다. 선선한 바람과 높고 파란 하늘이 마음까지 여유롭게 하는 이 좋은 계절 속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광주정신을 재조명하고 현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지난 2007년 첫 문을 연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 이 올해로 열한 번째 개강을 맞이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찾아주시는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좌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백수인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보편적 문화가치의 중심지이며 교류의 발신지인 문화도시 광주의 기반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앞으로도 지역문화를 선도하고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재단으로 거듭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광주 정신 계승 시민대학을 통하여 우리 선인들이 남긴 고유한 문화예술을 만나보고 시대정신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광주정신은 공동체의 미래다' 라는 주제로 개강하는 이번 열한 번째 시민대학 또한 인권존중을 추구하는 광주정신을 찾아보고 현시대에 광주가 나아가야 할 미래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강생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지역의 역사, 가치,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 정신에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7. 9. 6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 광 운

제1강좌 :

소수자와 공동체

- 우리 모두는 소수자다

윤 수 종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소수자와 공동체
- 우리는 모두 소수자다

윤수종(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우리는 모두 소수자다

우리의 시대는 소수자들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대중 매체에 의해 획일화된 주체가 되도록 강요당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자 색다른 생각과 삶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거대한 획일화에도 불구하고 아래로부터, 자기 안에서부터 표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수자와 소수자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성에 입각하여 설정된 표준적인 근대 인간상은 바로 백인-남성-어른-이성애자-본토박이-건강인-지성인-표준어를 쓰는 사람 등등으로 표상됩니다. 이성에 집착하는 이러한 표준적인 인간상은 표준화된 모형을 준거로 하여 광기(욕망)를 배제하고 주변으로 통하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유색인-여성-어린이-동성애자-이주민-환자-무지렁이-사투리를 쓰는 사람 등등을 배제하고 억압하는 권력과 연결됩니다. 표준적인 인간상에 대항하는 소수적인 인간상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것은 차이를 강조하는 탈근대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에 대한 인식의 기준이 근대적이고 획일적인 인간상에서 점차 탈근대적이고 다양한 인간상으로 이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소수자란 표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수자와 대척점에 있는 다수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수자라고 해서 소수자에 비해 더 훌륭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자들은 소수자들이 지닌 다양한 특성 가운데 어떤 하나 또는 그 특성들을 대표하는 어떤 상태나 표준에 한정되는 특성을 지닐 뿐입니다. 다수자는 어떤 표준을 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수자 자신이 설정한 표준에서 벗어나는 또는 벗어나려는

경향을 지닌 사람들에게 그 표준을 절대적으로 따를 것을 강요합니다. 다수자는 그 표준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지만 그 표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배제해 나갑니다. 결국 다수자의 상은 권력자의 상이며 국가나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수자화의 방향은 다양성을 막고 단조화되는 인간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반면에 소수자들은 다수자, 국가 권력으로부터 배제된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소수자들의 입장에서 말하면, 소수자들은 국가의 감시시선에 감지되지 않는 자신들만의 활동을 벌여나갑니다. 자신들의 고유한 욕망을 표출하면서 주변으로 향하는 다양한 출구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자들은 합법적인 공간을 확보하면서 국가의 장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소수자들은 국가 장치에 포획되기를 거부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소수자들에게 지역적 혹은 법적 명목상의 독립(자율성)을 부여하는 식으로 교묘하게 반격합니다. 소수자들의 활동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그들을 제도 속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부분적으로 국가 장치에 가두어 두려는 것입니다(동화정책). 국가는 소수자들의 지위를 확실히 보장해 주지도 않으면서 전복적 세력으로는 전환되지 못하게 하면서, 소수자들을 다수자 속의 요소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물론 끝가지 배제대상이 되는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자의 고유함은 비록 소수자가 단 한사람으로 구성될 때조차, 측정 불가능한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자처럼 표준에 맞추어 나가고 그럼으로써 측정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욕망의 흐름을 찾아 나섬으로써 측정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수자들이 색다른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지는 못한 채 대중의 활동을 지배 장치 안에 묶어두려는 국가는 국가에 적대적으로 나오는 특정 소수자들을 절멸시키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수자 하나를 없애면 바로 이 소수자에서 또 다른 소수자가 생겨납니다. 소수자들은 자신들의 규율들, 법령들, 자치체들을 지닌다 하더라도 다수자에의 통합이나 자신들의 내부 통합에 의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소수자들은 단순히 다수자에 적대적이기 때문에 자기 특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다수자의 작용 방식과는 다른 작용 방식을 지니기 때문에 소수자인 것입니다.

기존의 틀에, 표준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려면 우리 모두가 소수자되기를 감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나를 풍부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소수자적 특성들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통해 새로운 미시코뮌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소수자적

특성들을 거부하고 표준에 고착되어 저 멀리 있는 권력의 환영에 젖어 획일화된 공간에 갇혀 있기 보다는, 바로 지금 여기서 욕망을 분출시킬 수 있는 자유의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향에서 본다면, 우리는 모두 소수자입니다!

2. 소수자되기 : 소수자와 소수성

인권과 소수자

소수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논점은 인권 문제입니다. 소수자 당사자들도 자신들이 하는 운동을 자꾸 인권운동으로 개념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친구사이'라고 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글을 써달라고 하면 꼭 게이인권운동이라고 써옵니다. 레즈비언단체인 '끼리끼리'도 레즈비언인권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줍니다. 물론 저는 '인권'을 빼고 게이운동이나 레즈비언운동으로 바꿉니다. 당연히 장애인이나 이주자 등 다른 소수자들의 운동과 관련하여 대부분 소수자운동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운동을 인권운동이라고 개념화합니다.

제가 보기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수동적인 개념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국가폭력의 희생양인 개인이 보편적인 인권을 얘기하면서 나 이런 피해를 받았고 이제는 그런 피해 없이 살게 해달라는 그런 수동적인 느낌의 권리개념이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사실 민주화되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인권 개념을 포획한 거죠(쥐와 닭의 역행). 국가가 인권개념을 관리하며 인권피해자들을 보상하고 복구해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인권개념이 점점 덜 와 닿지만, 소수자들은 인권 개념과 인권운동의 의미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은 수동적인 의미의 개념이지만 시민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소수자들 경우에는 인권개념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주자들이나 기본적인 시민권 자체가 부정된 사람들은 인권개념이 필요합니다. 또 성소수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인권을 얘기할 때에는, 다양한 내적인 요구, 욕구, 욕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드러내서 분명하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자꾸 권리개념으로서 인권으로 표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권리개념으로 정치나 현실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좋다 그렇지만 권리개념 밑에 있는 요구와 욕구와 욕망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기존의 정치체제와 국가에 포획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권이나 권리 개념이 아니라, 그 권리 개념 배후(아래)에 있는 당

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에서 욕망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소수자

앞에서 다수자와 소수자를 대비해서 소수자를 규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흔히 소수자라고 하면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소수자 개념이 있습니다. '뭔가 생물학적 문화적 차이를 가진 집단이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차별을 하여 차이들이 차별화되는 것을 인식하는 집단'을 소수자 또는 소수자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 소수자라는 말이 마이너리티(minority)니까 숫자상 소수일거라고 상정하는데 대부분 숫자상 소수이지만, 여성처럼 남성과 대비하면 소수자임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흑인도 소수자이지만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계급운동

어쨌든 소수자 개념 또는 소수자 운동은 계급운동이 활발했던 시절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서구에서도 대체로 마찬가지입니다.

계급운동적인 시각은 노동자운동이 가장 큰 그림이고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운동에서 노동자 문제를 자본가와의 관계에서 해결해 나간다면 다른 부차적인 문제는 완화될 것이고 또는 해소될 것이다. 계급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여성문제를 해결해도 된다. 근데 왜 여성들은 여성문제를 먼저 제기하느냐?' 라고 다그쳤던 것입니다.

소수적인 문제가 항상 계급문제에 갇혀 밖으로 나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항상 하위파트너로 머물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분리해서 따로 하겠다' 라는 발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소수자운동의 핵심적인 발상은 이런 '분리'개념입니다. 전형적인 운동들은 통일, 통합, 대동단결 이념에 따라서 모두가 동일한 노선을 따라 움직이고 대중을 동원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현실에서는 당 담론이라는, 당(지도부)이 명령을 내리고 대중이 그에 따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수자운동은 기본적으로 발상이 조금 다릅니다.

계급적 차이와는 다른 사소한 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의한 차별들이 소수자적인 문제들로 나타납니다. 대체로 계급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일정하게 인식된 다음에 소수자 문제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소수적이고 불분명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색다른 구도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계급운동과 성소수자 문제, 계급운동과 성학(Wilhelm Reich))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요구와 욕구와 욕망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 얘기하는 이런 소수적인 주장에 대해서, 계급적인 관점이나 특히 권리를 강조하는 입장은 '그런 것은 부차적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미뤄두게 되었죠.

소수자운동

전에는 항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주변화시키던 소수자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그렇게 욕을 하지, 아니 그렇게 비난하는 창녀들을 뒤돌아서는 섹스를 하는 사람들이 앞에서는 왜 그러지, 군대에서도 여성스러운 몸짓을 하는 병사들을 지지배 같다고 욕하고 겉으로는 그러지만 밤에는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지 않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소수자 당사자들이 운동을 하니까, 구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수자 규정도 약자나 주변자라는 규정에서 다른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소수자운동이 나타났다는 것은 소수자들이 자기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죠. 페미니즘에서 여성을 규정하는 방식이죠. 과거에는 남성이 아닌 게 여성입니다. 여성이 여성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아닌 게 여성이고 인간이 아닌 게 여성인 것처럼 되는 거죠.

페미니즘이 결국은 뭡니까. '여자가 남자가 아니라고? 그럼 여자는 뭐야? 아니 너랑 나랑은 종자가 다른 데!' 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죠. 분리 개념이 전제되어 있으면서... 계속 같이했더니 하위파트너로만 상대해주지 절대 동등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분리를 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더 대우를 해줘요. 운동의 힘은 대동단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각 당사자들과 각 집단들에 대한 상호존중이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항상 누군가가 일등이 돼서 다른 사람을 끌고 가려고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헤게모니론)이 나옵니다. 소수자 운동과는 반대로 전체운동과 통일운동이나 노동운동이나 계급운동이 갖는 발상들이 대체로 헤게모니적 발상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만들어서 대중을 지도한다는 개념입니다. 소수자운동도 그런 요소가 가끔씩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당사자들의 요구와 욕구와 욕망을 관철시킬 수 있는 운동으로 지형이 넓혀지기 때문에 그렇기 쉽게 중심화 되거나 누구에게 위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리는 내가 누구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내 욕망을 어떻게 누구에게 위임합니까?

표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

소수자운동이 등장하게 되면서 소수자를 긍정적(positive)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표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 노동거부를 떠올리는 개념이죠. 이 개념규정이 아직도 과한 규정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다보니까, 당연히 '남성이 아닌 여성'이 아니라 '여성은 여성'이고 '남성과 다르다'는 식으로 규정이 됩니다. 소수자 당사자들이 주체로 등장하면서 표준화를 거부한다는 능동적인 측면으로 규정하게 되었죠. 물론 현실에서는 소수자들이 아직도 대부분 약자죠. 우리는 평등하다고, 남녀 평등하다고 당연히 법에서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대우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곳곳에 불평등 요소가 미세하게 그리고 더욱 확정적으로 제도화되어 작동하고 있지요.[1)]

소수자(운동)와 내부차별 문제

그런데 문제는 표준화를 거부한다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데도 그 안에서 차이와 차별이 나타납니다. 소수자운동 내부에 또 차이와 차별이 있습니다. 차이야 뭐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차이를 넘어 차별화가 문제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진짜 논쟁입니다. 다수자의 상에 가까운 '선명한 주체'처럼 진짜를 찾는 것입니다. 노동운동에서도 진짜노동자 찾기를 하였었죠. 물론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실제 노동자운동 안에서 또 맑스주의 안에서 진짜 노동자 찾기는 생산적노동자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는 꼴을 못 보는거죠. 노는 노동자, 이것은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백수라고 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런 인간들이 정치를 해? 믿을 수 없고

1) 흑인이고 소수자이지만 대통령으로서 강자(다수자)로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술집 같은데 가면 오바마도 흑인이에요. 백인만 가는 술집에 오바마? 힘들죠. 흑인만 가는 술집에 가면 훨씬 편하겠죠. 물론 흑인, 백인 섞이는 게 이상적이지만 기가 막히게도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에도 아프리카가 있어요. 미국 내부의 아프리카. 그러니까 애틀란타 같은 도시에 가면 거리에 흑인들만 다녀요. 백인들은 안 보여요. 근데 멋진 레스토랑에 가면 백인들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런데 가서 언더그라운드 파고들어가서 '신선한' 술집들 가봤는데, 겉에서는 모르는데 들어가 보면 흑인들만 있는 데가 있고 백인들만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내부의 묘한 차이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범주화되어서 따로 모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적인 현상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이념적으로는 대통령도 되고 모두 평등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재적 인종주의'라고 합니다.

동요하고 쓰레기 같은 집단이 무엇을 하겠는가? 당을 만들고 조직을 꾸릴 때 이렇게 비노동적인 세력을 일차적으로 배제합니다. 노동 안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산업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해서 중심에 세우고 전위에 세우고, 다른 쪽으로서 행상을 한다거나 유통업에 종사한다거나 요즘에 많이 하는 직접 생산하지 않는 다양한 보호노동 등, 특히 여성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노동분야, 그 종사자들을 부차화 하는 것이죠. 소수자 문제에서도 그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다수자에 대비(대항)해서 소수자로서 스스로 등장하였지만, 이제 소수자 내부의 차이와 차별이 드러나게 됩니다. 실제 소수자운동 내부에 보면 진짜논쟁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것은 운동을 통해서나 서로의 관계맺기를 통해서 해결해 가야할 문제이지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오히려 있는 것을 드러내고 교정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의 경우에 진짜 완벽하게 바뀌었는가 논쟁이 있습니다. 하리수처럼 완전히 여자, 예쁜 여자로 되는 사람이 극히 일부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이 그 중간 어딘가에 어정쩡하게 있겠죠. 그런 상태, 뭔가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면서 변형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그 집단이 모이면, 아주 남성적인데 여성 옷을 입은 사람과 하리수처럼 완전히 여성으로 변한 사람 사이의 프리즘이 쫙 펼쳐집니다. 여기에서 하리수같은 사람(이미지)이 지배하는 거죠. 대중의 인식 속에서도. 저는 이런 것을 반대쪽으로 틀자고 주장합니다.

가장 모호하고 가장 지저분한 사람들을 강조하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소수자 운동 안에서 또는 소수자 안에서 더 소수적인 것에 대해서 긍정하고 강조하지 않으면 또 덫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흔히들 소수자 안에서 진짜 소수자 찾기에 또 나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소수자 안에서 더 지저분하고 더 불쾌한 것들(더 소수적인 것)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가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소수자운동의 과제이기도 하죠. 소수자 운동이 그렇게 진짜 찾기에 나선다면 기존의 운동을 따라가는 것이죠.

정체성의 정치

물론 소수자가 자기긍정 위에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커밍아웃)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정체성의 정치'는 중요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다수적인 인식이 지배할 때 소수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뚫고 나올 때는

이 정체성의 정치가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 간의 관계나 소수자 내부의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데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너는 소수자다'라고 확인하려는 절차가 다수자적인 발상에는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소수자라고 규정하고 다수자와는 다르다고 하면서 차별하려고 하는 메커니즘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거죠. 물론 다수자가, 현실에서 전형적인 다수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수자이려고 노력하고 다수자인척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집단이 있는 거죠. 전형적인 다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수자라고 확인하고 누구를 레테르를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그 소수자로 좁혀주는 이런 식의 정체성의 정치를 이제는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색다른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나의 장점이다' 라고 하되, 나의 인성(퍼스낼리티)를 그 소수적 정체성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이 소수적 정체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성 속의 부분적인 정체성이라고 하자. 수많은 다른 혹은 모호한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는 다중적인 인격자라고 되받아치자' 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변할 수도 있고, 어떤 순간에는 (남성이) 여성이고 싶고 애기 같고 싶고 술 많이 먹은 다음날에는 장애인보다도 더 처져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고정된 정체성이나 퍼스낼리티를 지닌 소수자라는 확인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갖는 소수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수자 되기(특이성의 정치) : 소수성 드러내기

마이너리티(minority)라는 말 자체가 소수자라는 말도 되지만 소수성이라는 말도 됩니다. 누구나 다 다양한 소수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문제는 그것이 표현되려고 할 때 이 머릿속에서 '아! 이거 안 되지' 하고 다양한 규제메커니즘과 통제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수성이 드러날 때만 되면, '이래선 안 되지 내가 어른이 되가지고 애기 짓을 하고 있어? 아니 나같은 상남자가 이런 여성적인 태도를!' 그렇게 스스로 표현을 억제하면서 자신을 아주 경직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다수자에 집착하고 있지도 않은 다수자가 되고 싶어하는 다수화의 방식은 추상적 규범화,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자신을 단조화시키는, 다양한 표현양식을 단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소수자보다는 소수성을 강조하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소수성을 드러냄으로써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속성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관계맺기에서 훨씬 더 다양한 측면을 그러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형도착적 베트콩되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머리에 뿔난 얼굴이 일그러진 투사로서의 베트콩에 집착해서야, 5살짜리 베트콩, 70살 할머니 베트콩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겠습니까?

소수자 되기는 바로 내가 가진 소수성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성이 여성성을 흩뿌리고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성을 흩뿌리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여성적인 남성과 가장 남성적인 여성의 만남. 색다른 것을 드러내서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특이성의 정치). 그래서 소수자되기는 다른 사람들과 훨씬 더 접속의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소수성이 넘치는 사회가 사실은 가장 풍족한 사회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소수성은 자연스럽게 다양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동체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공동체

공동체 개념의 함정

인간은 과거(또는 미래)를 그리워하면서 뭔가 이상적인 형식을 그려내고 싶어 합니다. 또는 현실의 복잡하고 다양한 움직임 속에서 뭔가 중심적인 원리를 지닌 것처럼 생각되는 형식을 그려내고 그것을 '좋은' 모델로 제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향수어린 모델을 생각하면서 자주 언급하는 것이 공동체이고 그 구체적인 형식으로서 두레와 품앗이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적 착취와 억압 속에서 뭔가 대안을 찾으려는 경우에 공동체, 두레 등의 용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통 공동체라 하면 '일정한 지역 단위에서 생산과 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며 일정한 정도의 내적 공통성을 가진 집단'을 의미합니다. 물론 공동체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공간을 넘나드는 공동체로서 가상공간 공동체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운동으로서 공동체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체성 – 이질적 주체들의 공존과 결합

여기서는 소수자 이야기를 이어받아, 주체성의 측면에서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공동체를 말하려 할 때 구성원들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통일이나 대동단결 등의 결합원리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동일자의 논리이죠. 여기서 공통성은 성원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것을 모은 것을 말합니다. 동일자(통일) 논리 위에서 구성된 공통성은 하나의 선이나 명령에 쉽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헤게모니적 흐름에서 벗어난 것을 배제함으로써 새로운 위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개별자(, singularité)들이 서로의 동질적인 측면을 모아서 어떤 대표나 매개체에 그것을 위임해야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존의 동일자(대표제) 논리이자 구성방식에 대한 사고였습니다. 이 경우 개별자의 특이성은 무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공통성은 개별자들의 소통의 폭을 넓히기보다는 소통의 폭을 좁히고, 단조롭게 만듭니다. 그 공통성은 개별자들이 지닌 동질성의 산술적 합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제3의, n번째의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똑같아지는데 무슨 소통이 필요할까요? 소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명령(복종)이 내려지게 됩니다. 통합을 강조하고 모두가 같아지라고 강요합니다.

오히려 개별자들의 특이성을 강조하는 차이의 논리에 입각하여, 차이를 넓혀가면서도 공통성을 만들어 감으로써 소통폭을 넓히고 공통성을 풍부하게 만들어 가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달라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특이화)에 대해 왜 생각하지 못합니까? 동일해져야만 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달라짐으로써 새로운 것들이 구성될 가능성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이나 국가 같은 매개체는 바로 이러한 생성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어떤 경우에는 억압하기 때문에, 경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원들의 자율성 위에서 색다른 것들을 구성해내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구성권력).

따라서 이질적인 주체들의 공존과 색다른 것의 생성을 통해 부유해지는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기서 이질적인 주체들 가운데 일부는 게토를 형성해갈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공동체 개념과 공동체 운동에서는 게토화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동질화와 통합 개념에 입각하여 특이성을 꽃피우는 게토적 풍부함을 막아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게토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포용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목소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들으라고 강요하여 그들의 게토적 부를 박탈한 예가 있죠(청각장애인과 수화).[2)]

다시 말해서 모두가 같아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달라지는 공동체를

2) 색스, 김승욱 옮김,『목소리를 보았네』, 알마, 2012.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범위의 공동체 안에 게토까지 공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더 풍부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의제 파괴와 코뮌(공동체) 실험

이러한 방향을 가장 파괴하는 기존의 조직방식이 대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을 동질적인 특징을 지닌 요소로 환원하고 그것을 위임을 통해 대변한다고 하는 대표제 방식은 달라지면서 풍부해지는 방식들을 막아버립니다. 선거를 통한 정비, 그리고 대표자의 전횡, 더욱이 이어지는 복종. 더 이상 이런 권력구성방식에 동의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소수적이고 주변적인 것들이 꽃피워나가며 색다른 것들을 창조해가는 코뮌(공동체)을 만들어 가는 실험이 필요합니다. 가장 이질적인 것을 배제하지 않고 그것과 색다르게 결합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양성과 소통의 확장을 통한 공통성(공동체)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 윤수종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문학박사.

저서로 『자율운동과 주거공동체』, 『소수자운동의 새로운 전개』, 『새로운 농촌사회학』, 『농촌사회제도연구』, 『욕망과 혁명』, 『현대문화 이해의 키워드』, 『21세기 자본주의와 대안적 세계화』, 『안토니오 네그리: 마르크스를 넘어선 마르크스주의자』, 『사회이론과 사회변혁』, 『자유의 공간을 찾아서』 등이 있으며, 네그리, 가타리, 라이히 등 자율사상가들의 책을 번역 소개하였다. 또한 소수자운동에 관련된 『다르게 사는 사람들 - 우리 사회 소수자들 이야기』, 『소수자들의 삶과 문학』 등을 엮어냈으며, 전남농민운동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
2013『자율운동과 주거공동체』, 집문당
2013『소수자운동의 새로운 전개』, 중원문화 (공저)
2012『새로운 농촌사회학』, 집문당 (공저)
2011『농업생산조직사례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2010『농촌사회제도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욕망과 혁명』, 서강대학교출판부
2007『현대문화 이해의 키워드』, 이학사 (공저)
2007『21세기 자본주의와 대안적 세계회』, 문학과학 (공저) 등 다수

[역서]
2013『성 자유』, 중원문화
2013『동성애 욕망』, 중원문화
2012『인동의 세월: 1980-1985』, 중원문화
2011『성정치:빌헬름 라이히의 활동을 중심으로』, 중원문화
2010『미시정치』, 도서출판b 등 다수

[편역서]
2004『가타리가 실천하는 욕망과 혁명』, 문학과학사

[논문]
2013「넝마주의와국가:넝마주이집단수용의역사」,『진보평론』,265-296쪽
2012「성소수자와 욕망의 정치」, 『진보평론』, 191-223쪽 등 다수

제2강좌 :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위하여

-생태공동체와 생태마을 만들기

황 대 권

(작가, 생명평화마을 대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위하여
- 생태공동체와 생태마을 만들기

황대권 (작가, 생명평화마을 대표)

1. 산업자본주의의 실패

현재의 산업자본주의 체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근본적 변화를 겪거나 종말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 첫째가 지구자원의 고갈로 인해 대량생산과 무한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시기가 온다는 것이다. 둘째가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불안을 해소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생태주의와 공동체에 근거한 새로운 사회를 제시하고 있다. 생태주의에 입각한 공동체사회가 어떤 것인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소규모 생산자와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순환사회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순환의 구성요소는 사람뿐 아니라 생태계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물질을 포함하며, 순환의 기본단위는 '국가'나 '무역블록'이 아니라 '지역사회'나 '생명권역'(bioregion)이다.

2. 대안으로서의 생태공동체

생태공동체는 세 가지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것이 된다. 첫째, 생태공동체는 생태적이어야 한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명제이다. 아마도 인구비율로 따져 세계에서 숫자가 가장 많지 않을까싶은 한국의 종교공동체가 생태공동체로 불릴 수 없는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종교공동체는 대체로 공동체적이고 영성적이기는 하나, 전혀 생태적이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직 믿음'이라는 편협한 사고방식에 빠져 삶과 사회의 다른 요소들을 무시한 결과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들의 영성과 공동체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는 지나치게 폐쇄적이거나 위계적이고, 영성은 배타적이다. 한국 사회가 올바로 서려면 실질적으로 대중을 장악하고 있는 종교공동체가 생태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둘째, 생태공동체는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역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명제이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 원형을 공동체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능력과 역할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가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전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또한 공동체는 개인의 창조적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역할을 분담하거나 교체하여 줌으로써 전문가에 의한 지배를 피할 수 있다.
셋째, 생태공동체는 영성적이어야 한다. 비록 세 번째로 설명하고 있지만 생태공동체의 성공 여부는 영성적 요소에 달려있다. 종교공동체도 아닌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냐고 할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말하는 영성은 기존 종교에서 추구하는 '오직 믿음'과는 차원을 달리 한다. 기존 종교에서는 '믿음'을 위하여 다른 세속적 가치의 희생을 요구하지만 생태공동체에서는 세속적 일상 속에서 '영성'을 추구한다. 성(聖)과 속(俗)의 구별이 없는 것이다. 성스러운 것이 곧 속된 것이고 속된 것이 곧 성스러운 것이다. 이것은 일상의 성화(聖化)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생태공동체를 일구는 것은 일종의 수행(修行)이나 다름이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수행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수행은 출가 수도자들의 행위로만 알고 있었으나 그것은 오히려 성과 속을 분리하여 보통사람들의 성화를 가로막고 성이 속을 지배하는 결과를 빚었을 뿐이다. 이제 수행은 보통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존재의 기쁨'을 발견하는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3. 세계의 생태공동체운동

공동체운동은 자본주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생태공동체 운동은 6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자본주의적 풍요가 최고조에 이르렀을때 서구에서는 내부의 공허함과 제3세계의 빈곤을 바라보며 새로운 좌파운동(New Left Movement)과 시민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생태공동체운동이다. 이들은 현대자본주의 문명의 모순이 집약되어 있는 도시를 떠나 농촌이나 산간지역으로 들어가 자연친화적으로 삶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더 높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증거한다. 생태공동체는 물론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지만 도시지역에도 있다. 이들의 운동방식은 사회혁명이 아니라 삶을 통해 모범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이를 두고 lifestyle 운동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들이 사회운동의 일반적인 흐름에 무관심한 것은 결코 아니다.

1990년 유럽에서 GEN(Global Eco-Village Network)이 처음 결성되어 펴낸 편람에 겨우 20개의 생태공동체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1999년판에는 57개가, 2000년판에는 300개의 공동체가 수록되어 있다. 미국쪽에는 FIC(Fellowship for Intentional Community)가 결성되어 1990년판 편람에 186개의 공동체가 수록되었으나(이 가운데 142개가 농촌지역에 위치) 2000년판에는 700개 이상의 공동체가 수록되었다. 사실 편람이라는 것은 편집자들이 정한 일정한 기준과 자격이 있어 그에 해당하는 것만을 싣기 때문에 전통적 또는 종교적, 부족적 공동체 등은 빠져 있다. 그런 것들까지 다 치면 공동체의 숫자는 수천 개를 헤아릴 것이라고 편람의 편집자는 적고 있다. 생태공동체의 증가와 함께 공동체운동의 외연을 확대해주는 다양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바, 공동주거운동(.Co-Housing), 대안화폐운동, 토지신탁(Land trust),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 Initiatives), 대안기술운동(Alternative Technology), 지역사회은행(Community Bank), 공동체농업운동(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농민시장(Farmers' Market), 공동체 텃밭운동(Community Garden), 지역경제운동(Local Economy)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생태공동체운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연구소와 협회, 기구 등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 공동체들은 완전한 공산주의로부터 철저히 개인주의에 입각한 느슨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워낙에 스펙트럼이 다양하여 한 마디로 규정하기 어렵지만 90년대 이후 공통적으로 공동체 내부에 개인주의적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동체운동의 항구적인 속성이라기보다 시대적으로 공동체성이 강화되는 주기와 개인주의가 강화되는 주기가 교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제3세계에는 서구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공동체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이 서구의 식민통치 아래에서 서구적 근대화를 시도하였지만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지역과 마을에 근거한 공동체적 농촌개발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 계획의 원형은 간디의 사상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특징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나 마을 수준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운동이 이런 방식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대부분의 농촌마을에는 자금과 자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한정된 자원과 기술, 지식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3세계에서는 서구에서와 같은 계획공동체보다는 지역공동체운동이 더 일반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서구에는 이미 마을공동체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현대적으

로 복구하고자 하는 계획공동체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제3세계에는 여전히 잔존하는 마을공동체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가난과 빈곤으로 벗어나기 위해 지역공동체운동을 택하게 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생태공동체운동은 그 중간지대에 있지 않나 싶다.

한국의 생태공동체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90년대 이후라고 했지만 현재 온전히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공동체들은 대부분 그 이전에 시작된 것들이 많다. 그것은 공동체가 안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맨 땅에 삶의 터전을 일구고 거기에다 지속적인 생존기반을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주형 공동체의 경우 토지를 구입하여 회원들의 손으로 집을 짓고 농토를 만드는 기간이 최소한 3~5년이 걸리는데 그것도 회원들 간에 팀웍이 잘 맞고 자본동원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 수 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의 대표적인 정주형 생태공동체에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야마기시경향실현지와 경남 함양의 두레마을, 전북 변산의 변산공동체, 경북 울진의 한농복구회, 등을 꼽을 수 있다. 지역형 공동체의 건설은 주민들의 의식을 계발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공동체의 주체로 나서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표적인 농촌마을 공동체인 홍성 문당리의 경우 마을공동체가 공식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법인이 설립된 1999년이지만 그 이전에 풀무학교를 중심으로 벌인 지역공동체 운동의 역사가 40여 년이나 된다. 홍성 외에 대표적인 지역공동체로는 전남 장성의 한마음공동체와 전북 남원시 산내면의 실상들녁공동체를 꼽을 수 있다.

4. 생태공동체의 두 가지 길

한국에서 생태공동체를 이루는 데는 크게 보아 두 가지 길이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생태마을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 것도 없는 곳에 의도적으로 계획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다.

생태마을 전략은 정부주도와 민간주도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정부주도의 경우 농촌지역의 소득증대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어 자본주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컨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우 농촌관광을 그 주요 컨셉으로 잡고 있어 '생태'

라는 말은 단지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한 잘나가는 아이템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현재 전국 여기 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간주도의 생태마을 전략은 생태사회로 나가기 위한 진지한 시도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철학과 실천을 담보하고 있다.

한국에서 계획적인 생태공동체의 건설은 그야말로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다. 방금 말한 개인주의 문제도 그렇고 농사를 지어서 집단을 유지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지난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생태공동체가 비즈니스에 발벗고 나설 수도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그리고 아직 공동체운동의 역사가 짧다 보니 갈등해결을 위한 노하우가 적고 또 있더라도 잘 소화시키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계획공동체는 주로 종교(또는 유사종교)적 신념을 바탕에 깔고 있는 집단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5. 생태마을 만들기

생태마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범주가 생태주의 원리에 의해 재구성되어야 한다. 첫째 주민들의 생활환경, 둘째 마을의 경제구조, 셋째 자연환경, 넷째 주민역량이 그것이다. 이 네 범주는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므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태마을 만들기가 주로 외부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마을환경개선에 치중되어 있어 주민의 경제적 욕구충족이나 주민의 역량강화는 상대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느낌이다. 물론 환경개선을 통해 그러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지만 마을 만들기가 온전히 주민주체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1) 생활환경 범주
- 마을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개발
- 생태적 주거환경: 생태주택, 생태적 오폐수처리 시스템,
- 에너지 재활용 시스템: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 가스, 지열, 소수력 등
- 자원(쓰레기) 재활용 시스템
-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주거환경
- 자연과 조화되는 정주환경: 자연조경, 야생동물과 공존

2) 마을 경제구조
- 유기농업시스템: 토질개선, 농업부산물 퇴비화, 천적이용,
- 자급자족형 소농경제: 유무상통, 새로운 식량자원 적극 이용
- 지역순환경제 우선, 도농교류
- 적정규모의 2차, 3차 산업 개발: 농산물 가공, 농촌관광 및 농촌체험

3) 자연환경
- 순환의 관점에서 보존과 개발: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 자생수종 우선
- 야생동물 보호
- 자연친화적이면서 에너지 효율적인 경관배치: 방풍림, 연못, 정자나무, 마을숲, 그린네트워크, 비오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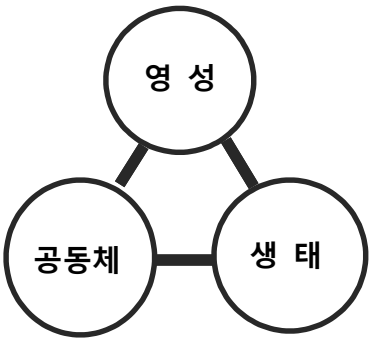
4) 주민역량
- 자급자족의 철학: 절약, 재활용, 재사용
- 공동체적 생활양식: 직접민주주의, 갈등해결, 마을굿, 품앗이, 제의, 명상
- 소박한 생활양식
- 자연친화적 생활양식
- 창조적 리더십 계발

이렇게 분류해 놓으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제대로 잘 할 수 있으면 나머지도 다 잘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 안에 나머지 모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생태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먼저 생태공동체와 생태마을의 기본원리를 살펴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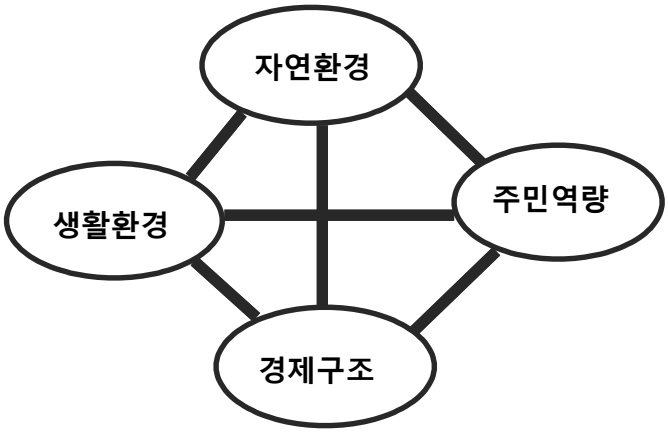
6. 생태공동체와 생태마을의 비교

생태공동체와 생태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는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생태공동체는 생태마을 보다 동질성이 더 짙은 집단이라는 것이다. 생태마을은 지리적 혈연적 조건에 의해 한 장소에 자연스럽게 모여 살게 된 것이지만 생태공동체는 다른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동일한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든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생태마을에서는 철학과 사상이 다르더라도 함께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생태공동

체에서는 그런 경우 본인이나 공동체나 서로 상당히 불편을 겪게 된다. 따라서 공동체의 이념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동체를 떠나거나 공동체에 적응하거나 해야 한다. 이렇게 동질성의 농도는 다르지만 작동원리는 똑같다. 다음의 그림을 보자.



생태공동체의 구성원리



생태마을의 구성원리

생태마을의 '생활환경'과 '경제구조'는 생태공동체의 '공동체'와, 그리고 '자연환경'은 '생태'와 각각 대응한다. 다만 생태마을에는 생태공동체의 '영성' 대신에 '주민역량'이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마을 주민들이 서로 다른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와 기술이 특별히 필요해서 이다. 따라서 생태마을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민역량이 되지 않으면 외부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이붓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태마을을 이룰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생태공동체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이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고도의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전체 공동체를 하나로 볼 줄 아는 영성이 절대로 필요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생태공동체들은 성원들의 영성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과 의식(儀式)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생태공동체의 영성과 생태마을의 주민역량이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유서 깊은 전통마을의 촌장이나 마을 어른들은 높은 영성의 소유자였다. 그들은 마을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외부세계에 대해 마을의 얼굴 역할을 했으며 때로는 주민과 자연 또는 영계 사이의 중

재자 노릇도 했다. 마을에 높은 영성의 소유자가 있음으로 해서 마을 전체의 주민역량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영성이 주민 개인의 깨달음에 기초하고 있다면 주민역량에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기술적 능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영성과 주민역량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영성은 '나'와 '마을(공동체)'과 '자연'을 하나로 엮어서 볼 수 있는 고도의 정신적 능력이라고 한다면, 주민역량은 목표로 하는 이상적 마을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인간적 능력을 뜻한다. 그러므로 생태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은 역량강화와 함께 적극적으로 영성을 개발에 나서야 한다.

7. 결론: 역량강화와 영성개발

생태마을을 만들어서 부자가 되겠다, 또는 도시의 중산층처럼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생태마을 만들기에 실패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생태마을은 그 근본원리나 구성요소들로 보아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생태마을은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지점에서 나온 가장 획기적인 개념인데 이를 물질주의적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생태마을 빌미로 돈 좀 벌어보겠다는 소리나 같다. 돈 버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시장경쟁력이 열악한 상황에서 돈을 벌려고 몸부림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생태주의 원칙을 어기게 되고 결국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했는지 모르게 된다. 따라서 생태마을 만들기의 근본 목표를 소득증대가 아니라 '나의 행복'을 통한 '마을의 완성'에 두어야 한다. 행복해지는 데는 돈 이외에도 생태마을을 이루는 과정 속에 많은 계기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말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자면 정신적 또는 문화적 것을 향유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하므로 필연코 영성의 개발에 힘써야 한다. 그런데 영성개발은 집단에 의해 계기가 주어져도 결국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생태마을 만들기의 첫 단추를 영성개발에 둘 수는 없다.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와 행정당국은 생태마을 만들기의 시작을 마을 인프라 구축, 마을공동체 형성, 또는 마을 지도자 양성에 두어 왔으나 이는 잘못 꿰어진 단추와 같다. 생태마을 만들기는 주민역량 강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황대권

작가, 생명평화마을 대표
1955년 서울생.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소재 사회과학대학원(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제3세계 정치학을 공부했다. 당시 학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01년 6월 8일 MBC<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통해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극이었다고 사건의 진상이 세상에 널리 밝혀졌지만, 이미 그가 서른이던 1985년부터 1998년 마흔네 살이 될 때가지, 13년 2개월 동안의 황금 같은 청춘을 감옥에서 보낸 후였다. 그는 감옥 안에 야생초 화단을 만들어 100여종에 가까운 풀들을 심어 가구며 징역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감옥의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감옥은 더 이상 그에게 투쟁의 장소가 아니라 존재를 실현하는 곳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그 이후 많은 문제들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지원이 들어오고 외국으로의 서신왕래가 허락되어 영국 펜클럽 명예회원 자격으로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다. 마침내 1998년 오랜 영어 생활에서 풀려나 전남 영광에서 농사를 지을 때, 노르웨이 국영방송(NIR)이 찾아와 그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방영하여 노르웨이 전역에 알려지는 유명인사되었다. 1999년부터 2년동안 유럽에 머물며 영국의 임페리얼 대학에서 생태농업을 공부하면서, 변화하는 세계의 모습과 유럽의 대안공동체들을 살펴보고 돌아왔다.
현재 전라남도 영광에서 농부로 살면서 생명평화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공동체 세상을 꿈꾸며 '생명평화결사'모임을 꾸려가는 한편, 생태공동체와 농업에 관한 글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야생초편지』를 출간하여 MBC「느낌표」선정도서, 동아·조선·중앙·문화일보 등에서 2002년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저서로『고맙다 잡초야』,『백척간두에 서서 - 공동체 시대를 위한 명상』,『야생초 학교』,『바우 올림』『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 - 황대권의 유럽 인권 기행』,『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빠꾸와 오라이』 공저로『치유의 인문학』,『상상』,『네가 있어 다행이야』,『세계 어디에도 내집이 있다』, 역서로『가비오따쓰』『새벽의 건설자들』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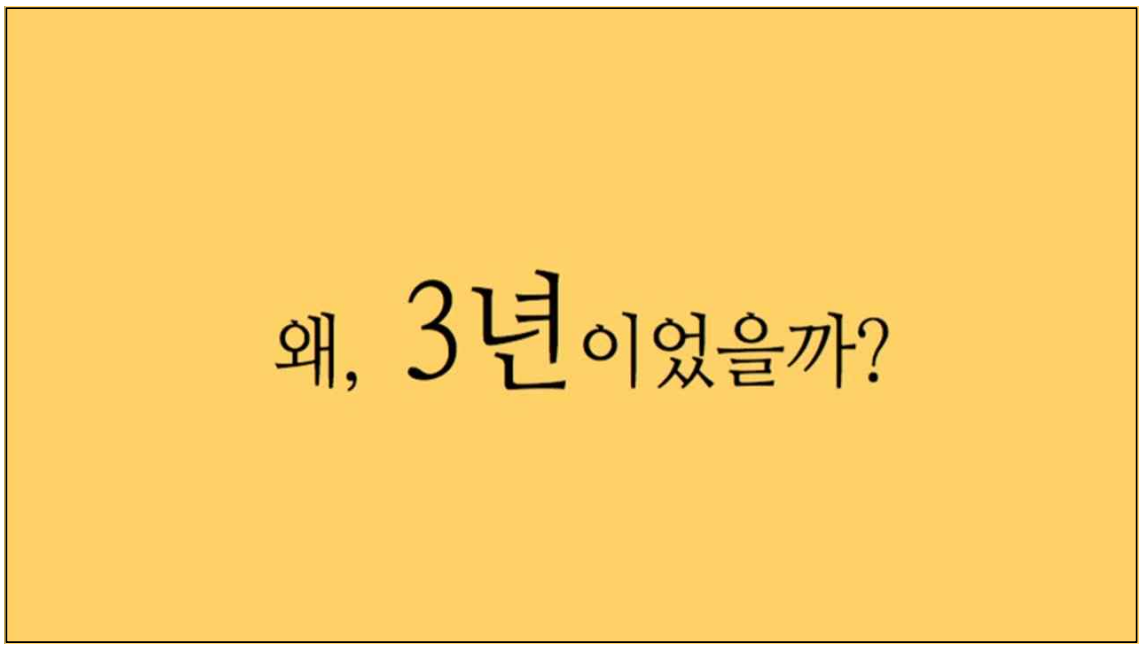
제3강좌 :

3년의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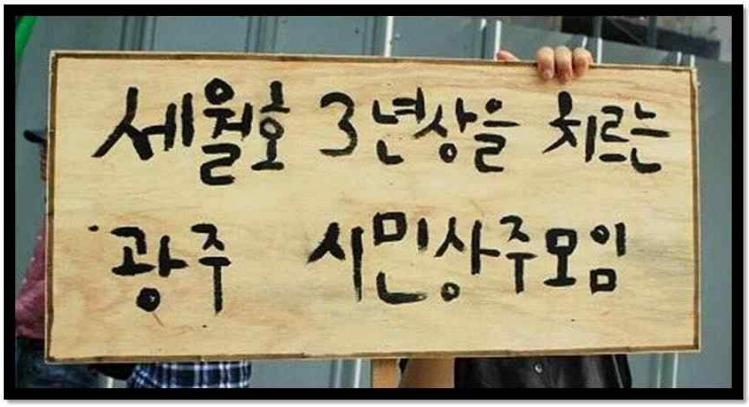
지 정 남

(방송진행자, 마당극 배우, 협동조합 '씨큐빅' 공동대표)

3년의,
사랑
remember
0416


왜, 3년이었을까?

아이를 3년 품어야 하는 이유



내가

품을 수 있을까?

남성성

Animus

여성성

Anima

누가 깃발이 될 것인가?

첫걸음1000일순례

5.18 그리고 4.16

▶ 지정남

국악방송 남도마실 진행자. 마당극배우. 콘텐츠 크리에이터 협동조합 '씨큐빅' 공동대표

1972 곡성 출생으로 1993년부터 <놀이패 신명>에 입단해 20년 넘게 배우로 <쌀방랑소고>, <97'일어서는 사람들>, <꽃등들어 님오시면>, <언젠가 봄날 엔...>, <꽃같은 시절>, <빵파전>, <까치야 놀자>, <인당수 연꽃하나>,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만자굿> 등 다수 출연해 활동했으며, 현재는 객원배우로 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광주 MBC 말바우 아짐」 라디오 진행을 맡았으며 2008년에는 독립영화 '어떤 개인날' 주연배우로 제59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초청되어 넷펫상을 수상했다. 2010년 모노마당극 '단마디명창 지정남의 해장소리'의 극작가 및 배우로 출연했으며, 2016년 프로젝트 마당극단 <마당극을 사랑하는 여배우들>, 재담마당극 <꽃신>, <권번>의 극작가 겸 배우로 활동했다. 광주 MBC '신 얼씨구 학당'을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재 광주 KBS TV '남도지오그래피' 나레이션과 광주 KBS TV '열린마당' 패널로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4강좌 :

공동체와 광장의 노래

정 유 하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공동체와 광장의 노래

-오월노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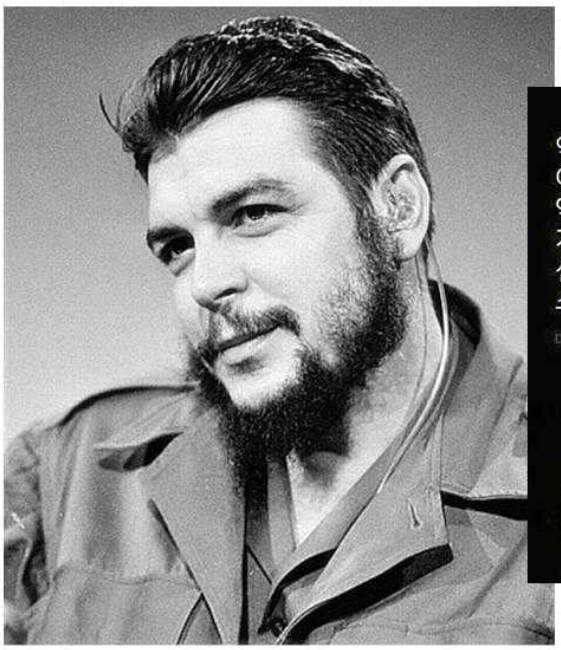
정유하

함께 노래합시다~

아침이슬(70,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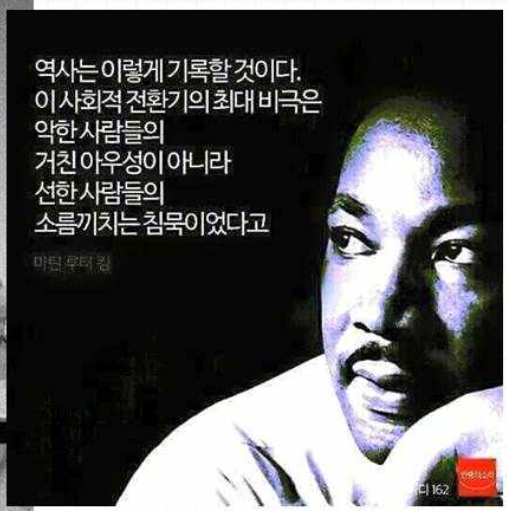
민중가요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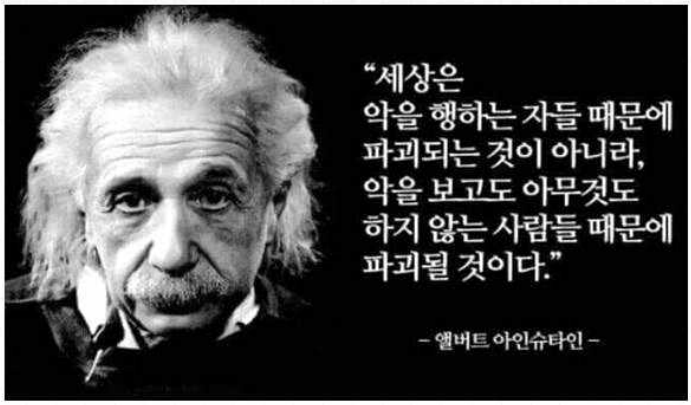
프로테스트 송(protest song, people song)은 주로 사회운동에서 불리는 노래를 총칭하는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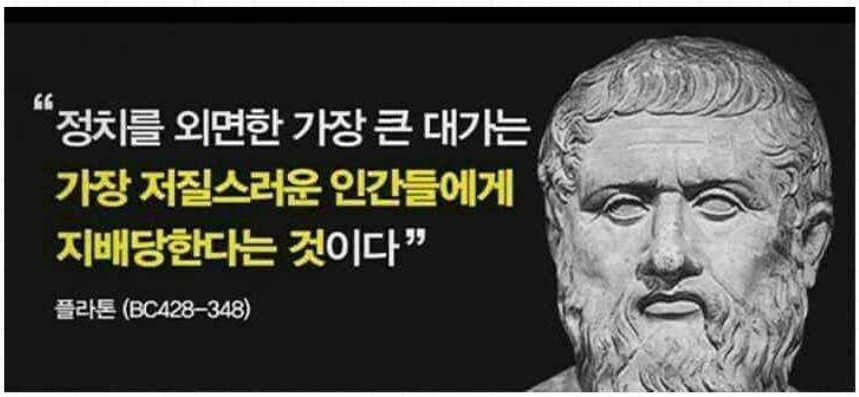


"네 자유와 권리는 딱 네가 저항한 만큼 찾는다."

— 체 게바라 —







1960~1970년대에 있었던 사회운동

- 반독재민주화투쟁: 1960년 3.15부정선거-> 4.19혁명->사회민주화 및 민족통일운동 ->
- 한일회담반대운동(이승만, 박정희 정권 하)
- 반유신운동(1972년부터~, 긴급조치 시리즈) -> 민주회복운동
- 농민운동-1970년대 초 가톨릭 농민회,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농민교육 프로그램
- 노동운동: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투쟁, 신규노조결성투쟁, 노조민주화투쟁 등
- 학생운동 – 교련철폐투쟁, 유신헌법 철폐운동, 인혁당 재건위 사건, 민청학련 사건, 함성지 사건, 고발지 사건, 교육지표사건 등

1960~1970년대 노래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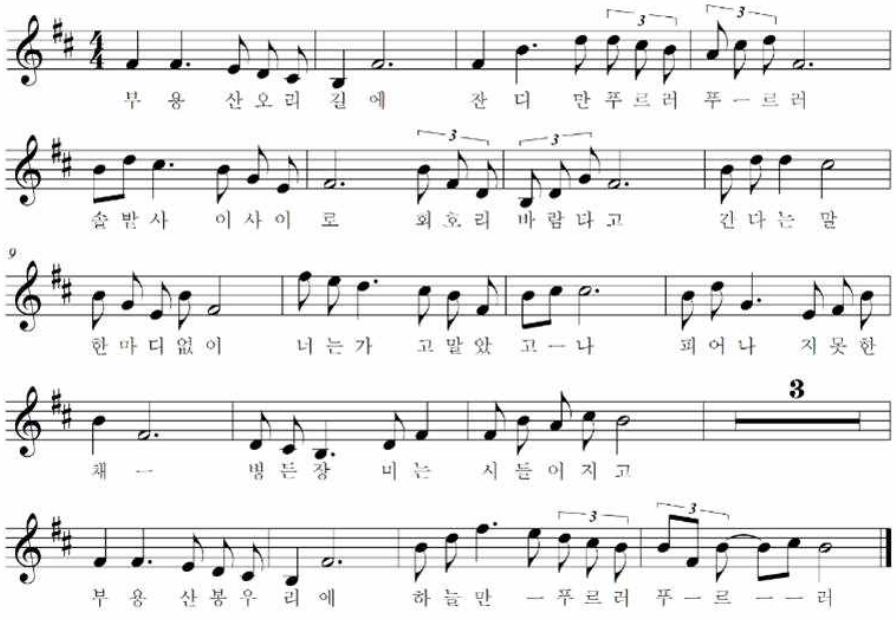
- 기존의 노래에 자신의 처지와 감성을 얹어 노래했다.
- 기존의 노래를 재해석해서 불렀다.
- 외국에서 들어온 운동가를 불렀다.
- 일제에 항거하는 동안 창작된 노래를 사회운동가로 재해석해 불렀다.
- 운동단체의 단체가를 전체운동가 삼아 불렀다.
-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아, 혹은 기독교 단체, 교회의 영향아래 외국에서 들어온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다.
- 음악인, 시인들의 사회참여정신에 의한 창작곡도 조금 있었다.
- 기존의 노래에 가사를 새롭게 붙여 운동가를 만들었다.

1960~1970년대에 불렸던 노래

- 부용산(박기동 · 안성현): 빨치산의 노래
- 선구자(조두남, 윤해영, 1933):중국 용정에서
- 가거라 삼팔선(게비어 송), 사노라면(1966)
- 해방가(독립행진곡, 박태원 · 김성태)
- 농민가(1960년대 초)-농사단 단가
- 바람이 분다(plsong.com), 탄아 탄아, 훌라송
- 스텐카라친 – 러시아 농민운동을 배경으로
- 흔들리지 않게, 우리 승리하리라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진달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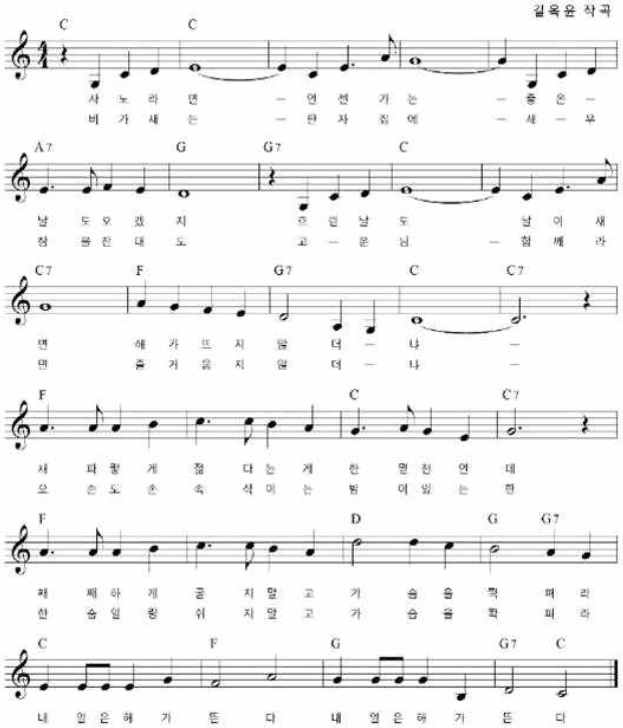
부용산

박기동 작사
안성현 작곡



사노라면

김문응 작사
길옥윤 작곡



1970년대 후반, 노래운동의 태동

- 김민기의 노래 등장: 1집(1971) 아침이슬, 꽃피우는 아이, 종이연(혼열아) 등
- 김민기-이리, 10남매 중 막내, 의사아버지 인민군에 의해 피살, 경기 중, 고등, 서울대 미대 회화과 입학(69), 듀엣 도비두, 1971년 김지하와의 만남, 1973년 연극 「금관의 예수」, 소리굿 「아구」(김지하, 이종구, 김민기), 노래극 「공장의 불빛」
- 대학 노래모임 형성 - 김민기 오마쥬, 서울대 메아리(77), 이대 한소리, 고대 노래얼, 성대 소리사랑, 연대 울림터 등
- 노래+운동=> 문승현, 창작곡, 사회성, 자연발생적 시위(데모), 1979년 이후

늙은 군인의 노래, 투사의 노래,

- 1976년 겨울 30년 정년을 앞둔 선임하사가 자신의 서러운 심경을 얘기하면서 김민기에게 막걸리 두말을 내고 의뢰한 곡
- 국방부장관-군내 금지곡->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금지요청
- 운동가요(민중가요)-투사, 교사, 농민, 노동자

감상: 김민기의 <친구>, <늙은 군인의 노래>

늙은 군인의 노래(투사의 노래)

2.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런 군인의 자식이다

좋은 옷 입고프냐 만난 것 먹고프냐 아서라 말아라 군인 아들 너로다

후렴: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내 청춘

3. 내 평생 소원이 무엇이더냐 우리 손주 손목잡고 금강산 구경일세

꽃 피어 만발하고 활짝 개인 그 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내 청춘 다 갔네

4. 푸른 하늘, 푸른 산, 푸른 강물에 검은 얼굴 흰머리에 푸른 모자 걸어가네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우리 손주 손목잡고 금강산 구경가세

『공장의 불빛』 – 야근(8' 50")

- 노래굿 -> 본인의 경험(봉제공장 취업)을 바탕으로 1978년 김민기가 극작, 작사, 작곡하여 만든 음악극, 카세트 테이프 비합법음반 제작
- (동일방직 노동조합탄압사태)
- 총 35분, 한 면에는 작품전체 수록, 뒷면에는 반주음악만 따로 수록-노동자들의 공연유도

-> 1980년 12월 백제야학에서 공연

- 포크, 동요, 국악, 재즈, 로큰롤 등 다양한 양식의 음악이 고루 사용, 전자기타, 드럼, 장구, 대금, 피리 등 사용
- 한국도시산업선교회 후원으로 제작 배포
- 광주의 운동권 학생들이 듣고 익힘
  -→ 영향을 받아 노래굿 『넋풀이』

<야근>

- 서방님의 손가락은 여섯 개래요
  시퍼런 절단기에 싹뚝 잘려서
  한 개에 오만 원씩 이십만 원을
  술 퍼먹고 돌아오니 빈털터리래

  울고 짜고 해봐야 소용 있나요?
  막노동판에라도 나가봐야죠
  불쌍한 언니는 어떡하나요?
  오늘도 철야 명단 올렸겠지요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1978년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 "구속교수 석방하라" (6.29)

- 유신과 긴급조치 시리즈
- 국민교육헌장(1968) 에 대한 대학교수들의 교육지표 선언(6.27)
  (송기숙교수 등 전대교수11명, 성래운(연), 백낙청(서), 안병직(서) 해직교수 등, 70명 목표)
- 6월 29일 : 훌라송, 농민가, 아침이슬, 흔들리지 않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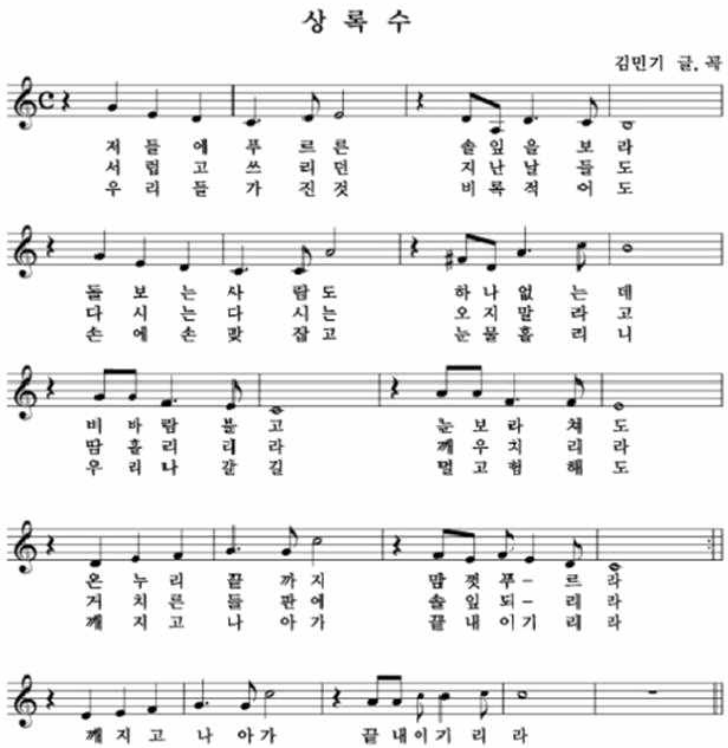
광주: 박기순, 김민기, 그리고 상록수

〈박기순〉

- 국사교육과 학생
- 교육지표사건으로 정학
- 들불야학 강학
- 과로와 연탄가스 사망 (12월 27일)
- 윤상원에게 들불야학 권유

〈김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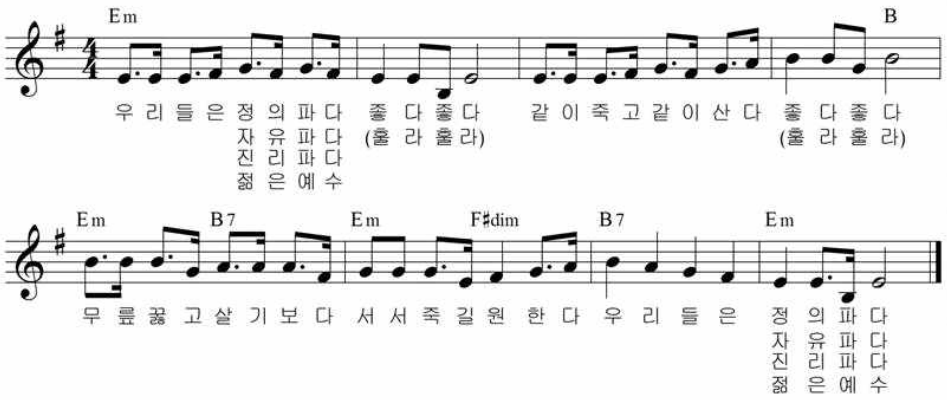
- 75년 강제 입대
- 안기부-식구생각
- 77년 부평공장 취업
- 공장노동자들 합동결혼식 축가 -> 거치른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1978년 겨울)
- 우연히 광주방문-> 박기순 장례식 참가 -> 조가로 이 노래 부름



1980년 5월 광주 –

- 1979, 10·26 사태, 12·12 사태
- 80년 교내: 아침이슬, 훌라송, 투사의 노래, 선구자, 흔들리지 않게
- 시민과 함께: 아리랑, 봉선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애국가

훌라송



- 민주학생 동참하라 좋다좋다

<훌라 송>의 역사 1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빙빙 돌아라, 손을 잡고 왼쪽으로 빙빙 돌아라....."

- 19세기 초반, 대영제국은 동인도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인을 전쟁터로 보내 싸우게 했다. 이 노래는 당시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오기는 했으나 팔과 다리가 잘려 돌아온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가 당신을 못 알아보겠다며 비통한 마음으로 부르는 느린 템포의 〈Johnny I hardly Knew Ye〉이다.

- 아일랜드인의 영국을 향한 저항의 노래이다

<훌라 송>의 역사 2

- 이 노래는 미국으로 건너가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군가로 개작되어 불려졌다.
- 〈When Johnny Comes Marching Home〉으로 변한 이 노래는 슬픔의 표현은 사라지고 군인들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원곡의 후루 후루(Hurroo, hurroo)는 후라 후라(Hurrah, Hurrah)로 바뀌었고 템포도 행진곡의 속도로 맞추어졌다.

- 후라 후라는 다시 우리나라에서 '훌라 훌라' 로 바뀌었다.

<훌라 송>의 역사 3

-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훌라 송>은 미국 북군 군가가 수입되어 들어온 것이다. 빠른 속도로 부르는 <훌라 송>은 학내투쟁에서 학생들의 마음을 모으고 투쟁심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 1970년대에는 주로 '우리들은 정의파다 훌라훌라', 혹은 '우리들은 정의파다 좋다 좋다' 라는 가사를 많이 썼기 때문에 제목을 <정의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정의가>노래와 혼동해 부르기도 한다.
- 86년 이후 노동운동 때 다시 가사가 바뀌어 불렸다. 매우 열린 형식의 노래이다.(노동3권 보장하라 좋다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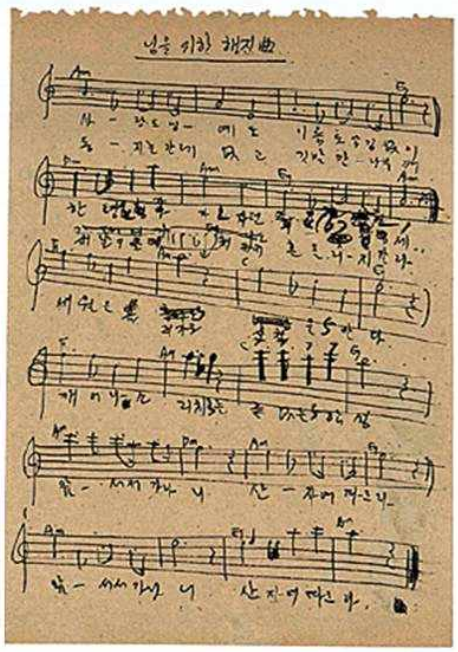
1981년 겨울의 노래공연 "김종률 작곡발표회" <검은 리본 달았지>

- 최초의 저항음악회-> 5월을 직접 주제로 다룬 최초의 공연
- 노래굿 『넋풀이』 제작-> 박기순과 윤상원의 영혼결혼식(1982.2.20) -> <님을 위한 행진곡(1982.3)>

노래굿 『넋풀이』

- 운암동 황석영씨 자택 2층
- 빌려온 소니 녹음기 한대
- 꽹가리, 북, 기타 등
- 황석영, 김종률, 전용호, 김선출, 오창규, 임희숙, 임영희, 윤만식, 김은경, 이훈우, 노래를 위해 멋모르고 참석한 전대 음교과 여학생 1명 등
- 젊은 넋의 노래, 무등산 자장가, 회상, 에루아 에루얼싸, 못오시나, 격려가, 님을 위한 행진곡, 시 '부활의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낭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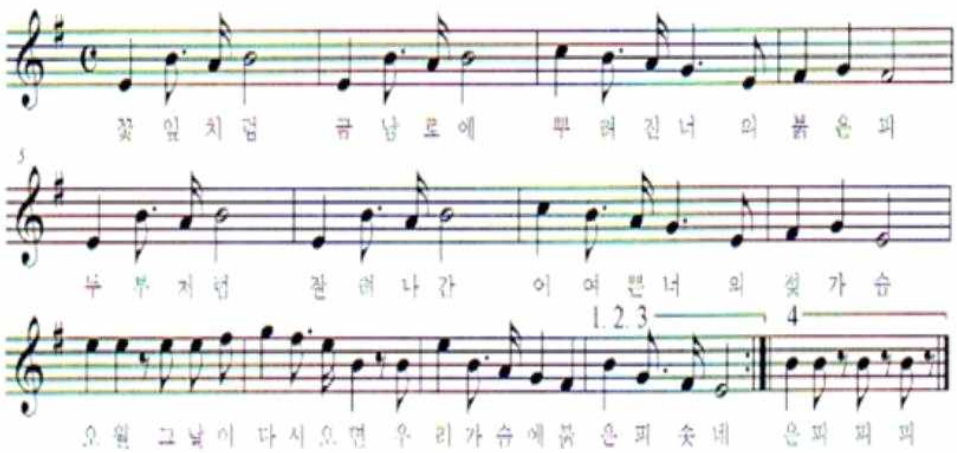
동지는 간 곳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 날이 올 때 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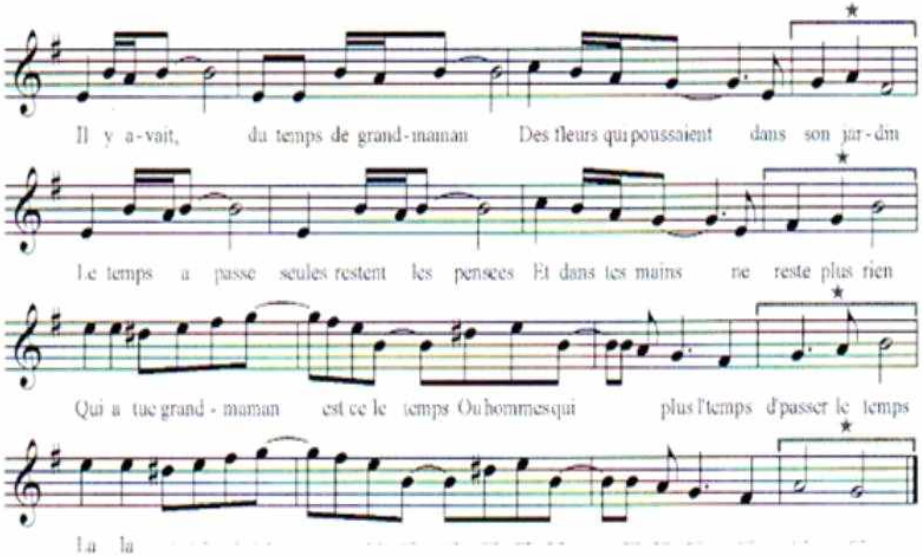
오월의 노래 1

- 문승현: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
- 한국일보 기자(이모부)로부터 광주의 소식을 접함
- 메아리 정기공연에 <오월의 노래>발표
- 1979년 정기공연 이후 -> 자연발생적 시위-> 운동권적 성격을 갖게 됨
- <그날이 오면>(1985) 전태일을 주제로 노래극 「불꽃」

<오월의 노래 2> (개사곡)



Qui a tué Grand Maman?



문성인, 정세현, 범능스님

- 문성인- 화순읍교회 기독교청년회활동(노래를 기막히게 잘함)
- -> 광주의 '일과 놀이' 의 풍물연수 참가시킴
- -> 기독교문화선교단 '갈릴리' 조직참여 활동
- 대학운동권의 음악운동을 위해 전남대학교 국악과 피리전공 입학(85)
- 전남대 중앙노래패 '횃소리' 조직- 총학생회 지원
- 〈광주출정가〉 작곡
- 오월운동 최고의 민중가요

문성인->갈릴리->정세현->친구->우리소리연구회

〈문성인/정세현/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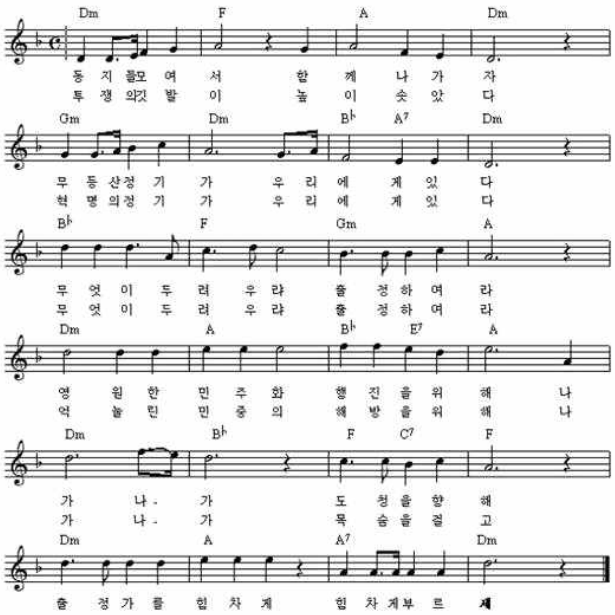
- 광주출정가
- 떠나간다
- 꽃아 꽃아
- 통일은 언제일까
- 우리님은
- 꿈은 아닐레라
- 일어서는 사람들
- 십자가

〈우리소리연구회〉

- 서울로 보내는 편지
- 하나됨의 꿈
- 그대 가는가
- 순이 소식
- 통일의 나라로 가자
- 요즘 세상살이
- 통일의 기도
- 꽃등 들어 님 오시면
- 진달래 노래
- 우리 것 찾아가세

광주출전가

고규태 작사　　정세현 작곡



박종화(전대 신방과 82학번)

- 데모하려고 탈춤반에 가입->
  5·18진상규명가두시위, 박관현 관 사수투쟁,
  인권복지위원회, '5월학살원흉 미제 및
  전두환노태우처단을 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협5투위 서울세종로
  정부종합청사점거토쟁진행 중 잡혀 감옥 행->
  감옥에서 음악독학-> 작곡시작
- 파랑새, 바쳐야한다, 10만학도 진군가(남대협
  진군가), 투쟁의 한길로, 여성전사, 분노
- 나의 사랑 한별을 우러러보네
- 『고난의 행군』 : 항일투쟁사를 소재로-> 백두,
  출정전야, 백두, 조국의 별, 깃발가, 투쟁의 바다,
  최후결전, 투쟁의 바다

오월거리굿-> 거리음악제

- 1989년 김원중 5월 거리공연
  (충장로 둬골목 학생회관 앞)
- 제1회 5·18민중항쟁추모
  "오월거리굿"
- 1990년 5월 18일-27일
- 장소: 금남로 2가 가톨릭센터 정문
  앞
- 주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출연: 천주교 광주대교구
  청년연합회 놀이패
  '흙' (김양균)의 길놀이,
  고재성(해직교사), 소리모아(박문옥,
  박태홍, 최준호), 김원중,
  홍승완(홍성담아들), 천주교
  광주청년연합회 노래패 '소리'

〈제2회 오월거리굿" 〉

- 백창우, 노래마을(이정렬),
  마산어린이 노래패
  '아름나라' (고승하),
  김여낭, 류금신

〈제11회 추모거리음악제〉

- "민중가요 100선"
- 장사익, 안치환, 새벽노래,
  백창우, 광주아름나라,
  전국아름나라, 김용택,
- 안도현, 조국과 청춘 등
- 6일간

소리모아: 박문옥, 박태홍, 최준호

- 전남대 미술교육과 선후배관계(7나.
- MBC 대학가요제 입상 〈저녁무렵〉
- 빈센트 -> 소리모아
- 예림음악학원, 큰나무미술학원-> 소리모아 스튜디오의 확약
- 박문옥: 〈목련이 진들〉 〈누가 저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구할것인가〉
- 박태홍: 〈금남로 사랑〉, 〈광주시민장송곡〉
- 박태홍·김경주: 〈전진하는 5월〉
- 김경주: 〈죽창가〉

오월거리굿 -> 거리음악제

1987년 6월 항쟁

- 1987년 6월 10일부터 6·29선언이 있기까지 약 20일 동안 계속된 민주화시위.
- 이한열 - 6월 9일 교내시위 도중 경찰이 쏜 직격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연세대 이한열이 사경을 헤매는 사건이 발생
- 12일 연세대생들의 '살인적 최루탄 난사에 대한 범 연세인 규탄대회'를 시발
- 전국 각 도시로 최루탄발사 규탄시위가 확산
- 19일과 20일에는 시위의 중심이 광주·순천 등지로 옮겨져 이 지역에서 격렬한 시위가 전개
- 시위구호도 '호헌철폐' 등에서 '독재타도' '민주쟁취', '군부독재 지원하는 미국은 물러가라' 등으로 격화

- 박종철 -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다.(6월 10일 발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987, 이한열)

1987년 민주화 운동을 위해 결성한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 협의체

전남대 전대협 제4기 출범식에서 합동 노래패 공연(1990)

전대협 소속 남대협의 활동지원

- 전남대 '횃소리'
- 문성인을 중심으로 류진주, 고경애, 양지철 등이 전남대 중앙 노래패 '횃소리'를 조직하였고 이 후 총학생회 지원활동을 전개
- →졸업 후 노래패 '친구'의 구성원

- 조선대 '함성'
- 한주상(85), 추말숙, 한누리, 이근철(87), 치산(87), 초수(88), 몽심(88), 여명(89), 개침(89), 외침(89), 똑이, 소하, 동자

광주의 노래패 '친구'

- 1987년 문성인, 배은경, 류진주를 중심으로 친구 창단-> 정세현
- 창단공연을 위해 김종섭, 이병채, 김영학 보강

->전영규, 주하주 등

- 공연 후 공연실황테이프 9종류를 복사하여 전국 사회과학서점을 통해 배포

- 1992년 해체
- 1989년 정세현은 노래패 친구를 탈퇴하고 진도에서 조공례선생을 찾아가 민요를 사사
- 우리소리연구회 창단 – 4개의 음반출반
- 출가하여 범능스님으로 불교음악활동

전대협->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남총련 노래단 '한반도'
- 새로운 스타일의 민중가요 탄생
- 〈새물〉
- 〈우리하나되어〉

▶남총련 노래단 '한반도'의 공연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고 신효순, 심미선 1주기 추모 및 615공동선언 3돌 기념 청년학생 통일무대

노래단 한반도 공연 장면

노래단 한반도는 2009년을 마지막으로 그 활동을 접었다.

광주 5월의 노래

- 〈동지〉작자미상에서 박철환의 〈동지〉로
  박철환: 전남대학생-농민운동-나주신문 편집장
  응답하라 1988에 고약한 딸 보라가 불렀음
- 윤민석의 〈광주여 무등산이여〉
  한양대 노래패 '소리개벽' 송앤라이프 대표
- 〈친구2〉: 청계피복노동조합(전태일)에서
  가사가 만들어졌을것이라는 추측, 1981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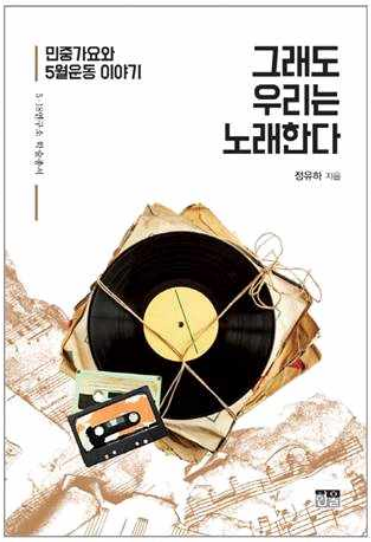
오월창작가요제

- 2010년부터 시작된 〈오월창작가요제〉를 위해 물심양면 함께 해주신 분들과 함께 2014년 〈사단법인 오월음악〉을 창립
- 2013년 제3회 오월창작가요제 대상 → 온더스팟 〈영자야〉
- 2014년 제4회 오월창작가요제 대상

→한줌의 소리의 〈평화의 먼길〉

* 2015년 제5회 스트릿 건스 〈꽃이 져서야 봄인 줄 알았네〉
* 2016년 제6회 미스터 험블 〈원숭이와 바나나〉
* 2017년 제7회 5월 14일 본선

민중가요와 5월운동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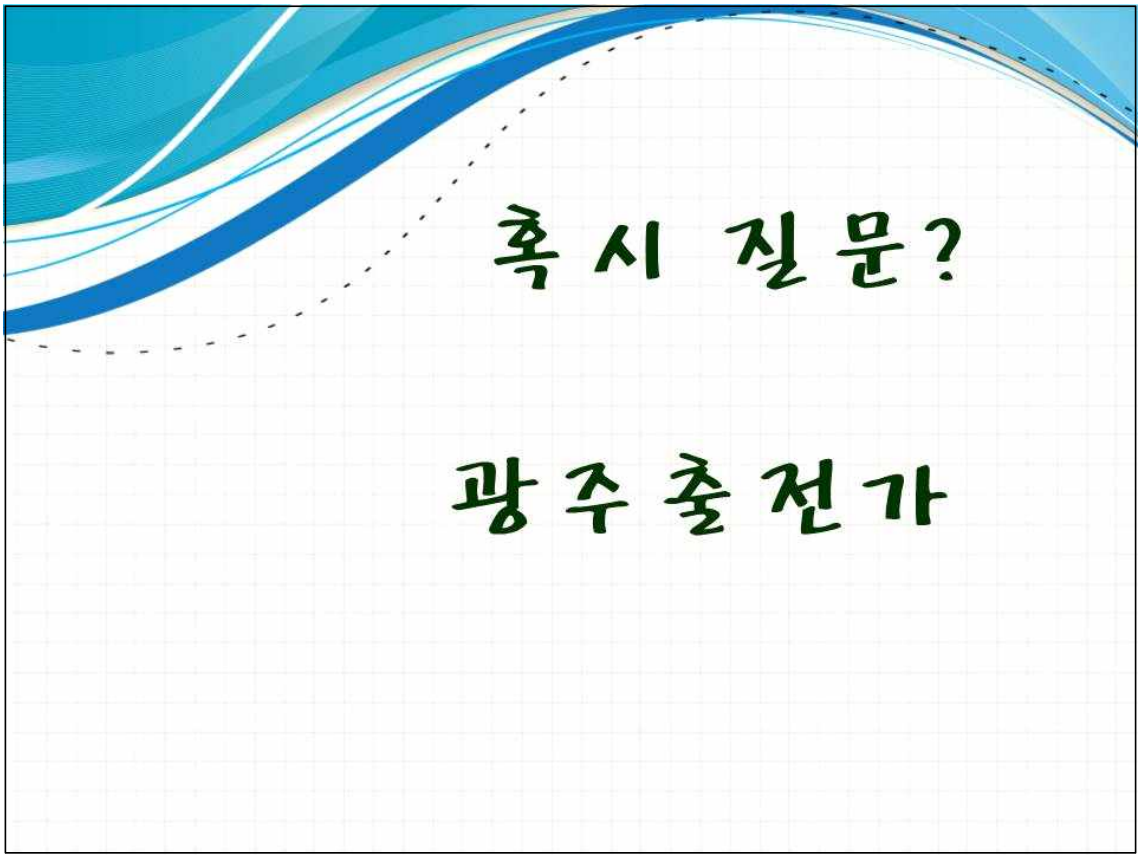
사회운동과 민중가요

1

- 사회운동: 기존의 사회 구조와 제도를 변화·개선시키기 위하여 대중과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적이고 집합적이며 연속적인 다양한 행동(노동운동, 5월운동, 교육운동 등)

2

- 민중가요: 주로 사회운동에서 불리는 노래를 총칭하는 표현이다.



정유하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연구교수. 전남대학교에서 음악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마쳤다. 이후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교에서 교향시 [GWANGJU UPRISING]으로 박사학위(D.M.A.: DOCTOR OF MUSICAL ART)를 받았다.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에서 박사후과정을 했으며, 2002년부터 5·18과 관련된 음악작품, 참여음악, 민중가요 등을 연구해오고 있다.

사라져가는 노래, 잊혀가는 노래운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민중가요를 통해 5월운동의 현장을 마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구해온 음악들을 푸른솔시민합창단과 함께 연주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5·18항쟁의 형상화에 사용된 음악 표현 양식」(2003), 「5·18 의례음악의 특성과 변화의 양상」(2004), 「정율성의 음악 연구」(2006), 「호남지역 음악연구의 현황과 과제」(2007), 「윤이상의 교성곡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에 관하여」(2007), 「윤이상의 참여음악연구: [화염에 싸인 천사]와 [에필로그]를 중심으로」(2011), 「광주지역의 대중음악인 활동사 연구: 1970년부터 2010년까지」(공동연구, 2012) 등이 있으며, 최근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제10권) 문화예술운동』(공동집필, 2016)과 『그래도 우리는 노래한다 -민중가요와 5월운동 이야기』를 펴냈다.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제11기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 자료집 **<비매품>**

지은이 .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펴낸이 .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 백수인
펴낸일 . 2017년 9월 6일
인 쇄 . 밝은인쇄복사(062-524-7671)

※ 이 자료집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우편번호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3(금남로3가) 삼호별관 2층
전화 062)234-2727 전송 062)234-2728
홈페이지 : www.rcef.or.kr / E-mail : r-cultural@hanmail.net